

* 지난주 강단제목 : 회복의 비밀과 치유의 비밀을 선포한 파수꾼 말라기 (말 3:10, 마 23:23)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이현규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이현규 목사

★ 입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6장. 목소리 높여서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서교독	78. 요한복음 14장 / 인도자와 회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6)

찬송	265장. 주 십자기를 지심으로 / 다같이
증보의 기도	(1부) 이명 장로 (2부) 김순호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41:38(구약 64쪽) / 인도자
찬양	(1부) 오직 예수(정요엘 편곡) & 믿음의 반석 위에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존귀하신 주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황제를 살린 영적황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언약의 사람아(1절) / 다같이

언약의 사람아 애굽과 광야를 두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당황치 말라

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을 체험하리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그날은 장년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유경형 장로 (2부) 주재진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김정연 집사 (오후) 이계옥 권사
인도, 설교	(오전) 심한결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김태운 권사

(오후) 이정미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설교	박범서 목사
----	--------

다음 주 기관보고 : 소망부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령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중추절 예배순서지가 5층 참사랑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연후되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 주일(9월 27일)은 추석연휴 관계로 교회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다음 주 주일(9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네프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4. 다음 주 주일(9월 27일) 램네프서 연합예배 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이 있습니다.
5. 11월에 해외전도캠프가 진행됩니다. 캠프기간은 집회 일정 포함 3박 4일 계획 중이며,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캠프	일정	장소	예산경비	모집기간	담당자
아시아 산업인대회	11.10(화)~11(수)	싱가포르	150만원~	9월 30일(수)까지	박주은 집사 010-7158-8591

6. 2027년 3월 중 삿포로 스키캠프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장소	예산경비	대상	모집기간	담당자
2027년 3월 말	일본 삿포로	200만원~	초급자부터 가능	9월 말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7. 북요일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원점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장소: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아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네프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참사랑교회)
 - (예: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심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금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9.14~24 아르메니아 선교캠프)
2.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3.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네프스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릭킵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동계. (담당: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한 달에 1번. (담당: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네프실. (담당: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북음영어클래스: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팝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토크를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23화요제자훈련이 9월 22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다민족선교대회가 '그 시간의 그 사람들(행9:1-15)'을 주제로 9월 24일(목)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세계종화권수련회가 '7Point의 주역들(행11:19)'을 주제로 9월 25일(금)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5. 오세아니아 램네프대회가 '최고의 기회를 가진 램네프(행9:15)'를 주제로 9월 30일(수)부터 10월 1일(목)까지 임마누엘호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6. 제1회 결혼선교예배학교가 '결혼은 증인의 사명현장(행1:8)'을 주제로 10월 5일(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7. 세계RTS대회가 '회당에서 로마로(행19:8-21)'를 주제로 10월 6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8. 제23차 2026 세계군선교대회가 '고넬료에서 로마로(행10:45)'를 주제로 10월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복미주 산업인대회(1~2, 뉴저지 서밋장로교회), 미주 영산업인수련회(2~3)
1주차	강남노회 시찰회 및 상비부모임(7) /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8)
2주차	교회창립59주년 기념예배(13), 제11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4, 광주복음교회) / RTS주일(13), RU박사원(가을학기, 16~17), 램네프데이(19)
3주차	237화요제자훈련(22, 덕평 RUTC), 직장인합숙(2기, 24~26), 다민족선교대회(24), 세계종화권수련회(25)
4주차	램네프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27) / 오세아니아 램네프대회(30~10.1)

9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김정희A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6층) 오국환 정연규
안내위원	(위원장) 배승찬 (1층) 양경심 김정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제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결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정심 임근일 최철규 장영균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공이 김화진 호민수 김춘례 김재귀-장소녀 김순자 김나경 김용관 김정순 임영순 김갑례 이미화 박인자 김미자 이은희 김경애 최승화 김영순 박희영 이순근 김주영 정향란 이영순 방주은 유재숙 전은정 나경철 신현식 김정연 정민호-이서은 손병순 박정수 박숙자 여 명 임소순 심성하 윤소옥 주예진 한영화 박난순 양경아 여 명 안나근 고경훈 이기에 김태은 최영국-김윤지 박찬열 정수환 이민형 김지수 이연규 김창균 임예진 김소라 고진순 권혜경 김영희 이효숙 김승훈 김혜인 한경숙 유영식 이민수 김숙희 김지후-이현주 김명철 장유미 임혜연 채송아 안선희 배준서 안예근 김지수 정문철 이선아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심한결-정지혜 김경애 정은숙 이채은 방주은 강공이 박진수 소귀영-정영호 배형석-박인자 안나근 손혜옥 손상현 배준서 조현지 고경훈 권혁복 아이연 이민형 김현성-이미화 김성재 윤태자 정연규-이은숙 이수용-이미자 나경철-신현식 김경희 채송아 이선아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이수용-이미자 최승화 정세완-박희영 김경애 정민호-이서은 조성균-김갑례 양정심 김미자 유경선 박학규 김애경 박천재 황혜주-이준영 최신혜 이은숙 한경숙 김지후-이현주 유경형-리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박영인 정문철 이선아 무명
심방헌금	지복순 임상식 임민재
창립59주년	정윤돈 최정웅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김원일-전인숙 이영순 김경희 김주영 장길순 윤태자-김성재 이수용-이미자 김재귀-장소녀 박인자 조성균-김갑례 김영희 최신혜 김순자 장년영 호민수 송영희 김영진-최혜숙 손병순 김금남 이명재-구윤진 임영순 김현성-이미화 김지영-김민영 김근호 임혜연 유충현-강공이 유승호 김정순-김용관 박난순 정세완-박희영 정향란 김계자 문길순 김애경 오신자 이정운-이순덕 김영순 임소순 김일호 박숙자 최재경 김재순 김시언 정민호-이서은 양경아 조현지 양정심 오이라 유승환-최이현 정수환 최승화 김태은 박주은 유승범 주은경 김승훈 김혜인 고경훈 정연규-이은숙 여 명 김창균-임예진 임혜미 고진순 임경미 노은현 이효숙 최철규-한영화 박찬열 이민수 김숙희 유영식 최명홍 이계옥 이 명 주재진 김지후-이현주 유경형-리종화 권은희 나경철-신현식 오국환 박동영-최진희 조부영 박지영 임근일 양은숙 채송아 창립기념헌금** 무명5
총회은금	이미화 정향란 윤태자 손병순 김갑례 이수용-이미자 문길순 양경아 무명
차량헌금	정윤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임영순 이은희 방주은 정수환 유승범-주은경 정연규-이은숙 김승훈-김혜인 이수용-이미자 박동영-최진희 김경희 조부영 채송아 여 명 손혜옥 정문철 이선아
치유센터	정윤돈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2026년도 총계 498,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임근일 양은숙 이수용 이미자 최영애 임영순 강공이 박인자 정영호-소성규 방주은 김태은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김창균-임예진 정연규-이은숙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손혜옥 정문철 이선아
장학헌금	정윤돈 심한결-정지혜 김원일-전인숙 이수용 정수환 유승범-주은경 정연규-이은숙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정문철 이선아
어학연수	정윤돈 정수환
RUTC헌금	정윤돈 전정아 강공이 방주은 정수환 정연규-이은숙 김승훈-김혜인 이수용-이미자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정문철 이선아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9. 9. ~ 2026. 9. 15.)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119,960,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76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0,652,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68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5,000,000엔 (한화 3,960,500,000원 / 100엔환율=89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김홍기 문길순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 B 윤소현 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김정수 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 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 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이준영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운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도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숙 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 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 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 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정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조동범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u> 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정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선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수화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회복의 비밀과 치유의 비밀을 선포한 파수꾼 말라기

-복음으로 여는 말라기-

말라기 3:10, 마태복음 23:23

창립 59주년과 교회에 주신 응답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응답을 붙잡아야 하는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성전과 교회가 무너졌다. 유럽과 미국, 한국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참사랑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한다.

1) 과학 기술만으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정치를 잘하고 소득이 높으며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퍼터 킬의 과학과 사회에 대한 대담을 보면서,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I 역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을 위한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방향이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기준이며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을 두려워하지나 그것 자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우리가 붙잡고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다. 우리가 붙잡고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법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다.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결국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3) 선악을 분별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서로를 판단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좌우와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으로 사람과 세상을 나누려 한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진영 논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과 우주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오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2.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 복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깊이 주신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 역사하신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 예배와 부흥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오늘의 한국이 세워지는 과정에도 이러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와 헌신이 함께해야 한다. 의인 한 사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한 교회가 한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복음이 없으면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으로 흑암의 역사를 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1)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바란다.

(2)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가 전할 복음의 말씀이다.

(3)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떤 인간도 우리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4)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나 인격이나 윤리와 도덕에 근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5)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다.

3. 오직 기도 속에서 성령충만을 받을 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 살릴 수 있다.

1) 다니엘처럼 기도 성경에는 기도의 모델들이 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단 6:10).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성도는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한다.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하셨다. 우리는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 기도하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지나고 보니 기도하며 기록했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하셨다. 당시에는 늘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빠뜨리지 않고 주셨다. 쉼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돌아보아야 한다.

4) 우리 교회도 헌신과 회생과 기도를 통해 세워졌다. 지금의 참사랑교회는 제3성전이다. 과거에는 판자집과 같은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성도와 장로와 중직자의 헌신과 회생과 기도를 통해 오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응답을 이어받아 더 큰 열매를 맺어야 한다.

5)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한다. 염려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먼 미래까지 바라보며 기도와 감사로 살아야 한다.

6)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남은 자이며 순례자이며 정복자이다. 일곱 포인트의 사람은 믿음과 기도와 감사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4.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한다.

- 1) 첫째,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적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2) 둘째,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3) 셋째, 후대를 영적·기능적·문화적 서민으로 세우야 한다.
- 4) 넷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 5) 다섯째, 복지와 전도NGO를 통해 복지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오랜만에 케냐에 갈 예정이다. 케냐에서도 선교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NGO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지금은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직업훈련원까지 세워졌다. 이 응답으로 주변 나라의 강사로 다닐 정도가 되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6)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서 믿음운동, 치유운동의 절대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100년, 1,0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된다.

서론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도 바로 이러한 회복의 문제를 다룬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지 약 100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나태해졌고, 교회와 성전과 예배가 무너져 갔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비밀을 파수꾼 말라기를 통해 전하셨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문제들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문제는 불신앙과 영적 타락이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반문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훈계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혼인과 인도에도 사랑의 뜻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2)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한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책망하신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로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때 성장한다. 그러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변화할 수 없다. 당시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쟁,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

하나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은 더러운 떡과 눈 멀고 병든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을 책망하였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가치 없는 것을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선 원하신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었다. 제물의 피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제사의 타락은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복음이 희미해진 상태를 보여준다. 제가 가끔 장로님들에게도 총회에 오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 목회자와 종직자 역시 자라나 이익을 중심으로 다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성도는 현재의 갈등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미리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만큼 믿음이 성장하여 현재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비웃으며 현금도 바르게 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반쯤 포기하기 시작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려 코웃음치고 흉터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불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말1:13)" 말라기 1장 13절은 그들이 불헌을 귀찮은 일로 여기고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책망한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귀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일보다 낮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 수 있다. 그러나 성령충만하고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와 봉사와 후대를 위한 헌신을 귀하게 여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42)"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와 성도와 랍넛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믿으시기 바란다.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성공과 부와 직분을 얻었다면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한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전파와 세계를 살리는 데에 있다. 성공할수록 예배와 헌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이다.

4)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말2:2)" 말라기 2장 2절의 경고는 하나님이 단순히 양값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강한 권면이다. 성도는 세상이 바라보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계3:16)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5)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혼하고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하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6절은 이혼과 하대를 책망하고 심령을 지키라고 말씀한다. 가정에서 폭행하고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영적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개인의 행동이 무너지고 결국 가정과 사회까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존중해야 한다.

6) 백성들이 성전에 드러야 할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백성이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야 했고, 결국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다(느13장).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전을 정리하고 다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회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십일조와 헌물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예배와 교회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이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와 사역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실천이다. "내가 또 알아보지 래위 사람들이 받은 물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래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 13장 10절은 래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받은 물음 받지 못해 각자의 밭으로 떠났다고 말씀한다. 십일조와 헌물은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며 복음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의 참사당교회 역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 59주년까지 세워졌다. 이 응답의 가치를 알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헌금하고 십일조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다. 십일조의 근본은 강요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결단에 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얻은 후 멜기세렉을 만나 십일조를 드렸다(창14:17-20). 이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십일조는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십일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후 멜기세렉에게 십일조를 드렸고(창14:17-20),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고 십일조를 드렸다고 결단했다(창28:20-22). 이후 레위인은 성막과 성전의 사역을 담당했고 다른 지파의 십일조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민18:21). 따라서 십일조는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세신자는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와 종직자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맞는 헌신이 필요하다. 초대교회 역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헌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었다. 십일조와 헌신은 사람마다 형편과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자신의 형편과 사명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도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과 누님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작은 결단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말라기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

게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더 드리고 더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 어머니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다. 교회 곳곳에 남겨진 그 흔적을 보며,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후대가 회복되는 모습도 보게 된다. 믿음의 기도와 헌신은 후대까지 이어진다.

2)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이름을 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237나라, 5천 종족, 즉 땅끝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방 민족, TCK, NCK, CCK이다. 이것은 복음이 특정 민족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준다.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이 크게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복음이 크게 확산되는 시간표가 있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민족과 나라에 전달해야 할 시간표이다.

3)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여 하시겠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다는 뜻이 아니다. 십일조를 통해 예배와 성전과 사역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4)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7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에는 예배와 헌신과 찬양뿐 아니라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도 포함된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한다.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치유하는 광선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생명과 기쁨이 회복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약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사역(신약 세례 요한, 마11:13-14)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사역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관계와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영접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길이 열린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예배와 헌신, 삶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결론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의 광선이 성도들과 후대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현장에 발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라기 선지자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치유의 광선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랙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팝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합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장)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60여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넳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